

“손해사정 개선·사전검사 확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생보사와 간담회
잠재 리스크 예방 위한 사전적 검사
자율적인 내부 통제 강화 유도 예정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보험회사에 대해 사전적 검사를 강화하고 동시에 손해사정과 의료자문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은 25일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8개 생보사 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간담회에서 “1990년대 일본의 자산 거품 붕괴 이후 닛산(日産)생명·토호(東邦)생명 등 7개 생명보험사의 파산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당시 생존한 보험회사는 자산 거품기에 단기 실적에만 치중하지 않고, 자산·부채종합관리(ALM)를 강화하는 등 리스크를 관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잠재 리스크

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겠다”며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낮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내부감사협의체를 통한 자체 점검 등 자율적인 내부 통제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지적돼 온 보험업계의 불건전 영업 관련 문제점도 사전에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했다.

정 원장은 “소비자 보호 상시감시시스템(CPMS)을 구축해 소비자 보호 취약 요인을 사전에 포착하는 등 불건전 영업 행위를 예방할 예정”이라며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도 보험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이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손해사정·의료 자문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정 원장은 생명보험업권의 혁신도 지원할 방침이다. 그는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소비자 피해나 공정 경쟁 저해 우려가 없도록 규율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자산운용·헬스케어·활성화 등이 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및 부수 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하고, 화상통화·챗봇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 모집도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신한금융그룹이 신한 스퀘어브릿지(S2 Bridge) 인천에서 지난 1년 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2021 멤버스데이’를 개최했다. /신한금융그룹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서 성과공유회

신한금융, ‘2021 멤버스 데이’ 개최

신한금융그룹이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신한 스퀘어브릿지(S2 Bridge) 인천’에서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2021 멤버스 데이’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은 답테크·바이오·헬스케어·스마트시티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교육, 투자,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윈스탑 육성 플랫폼이다.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은 지난 해 11월 1기 출범 이후 총 108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큐베이션 ▲엑셀러레이팅 ▲글로벌 진출 등의 프로그램과 함께 IR컨설팅을 지원했다. 그결과 선

발기업 중 50%인 51개사는 총 705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선발 시점 대비 기업가치는 평균 66% 성장했다.

특히 글로벌 트랙에 선발된 기업들은 총 11개국에 23개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총 274억원의 해외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올해 10월에는 해외 스타트업 6개사를 멤버사로 선발해 국내 진출도 지원하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지속 제공할 것”이라며,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을 글로벌 스타트업의 거점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채무 굴레 벗고 재기 꿈꾼다... 재도전의 날

#. 아내가 강도로부터 상해를 당했다. 의사는 칼에 찔린 상처만 12군데인 아내의 상태를 보고 깨어나기 힘들다고 말했다. 청천벽력같은 소리였다. 생계를 위해 운영하던 광고기획사는 중환자실에서 아내를 간병하면서 경영이 급속도로 악화됐다. 불행중 다행으로 아내는 건강을 회복했다. 하지만 회사가 망가졌다. 결국 회사는 폐업했다. 빚잔치를 하고 나니 남은 것은 또다른 빚과 신용불량자라는 멍에였다. 먹고 살기위해 다른 회사에 취직했다. 그러면서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굳게 마음을 먹으며 재기를 다졌다. 광고기획사를 폐업한 후 14년만에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났다. 본인 이름의 통장과 카드를 받아내고 다니던 회사에서 배운 노하우를 활용해 재도전을 준비했다. 항공·탈취 기능을 갖춘 인조잔디를 주력 아이템으로 하는 ‘웰니스’를 창업했다. 특히도 15개나 받았다. 2019년에 6100만원이었던 매출은 이듬해엔 8억4500만원으로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5일 ‘2021 재도전의 날’을 맞아 지난 8월부터 10월 사이에 진행된 재도전 사례 수기 공모전에서 ‘천국가는 아내와 지옥에 사는 남편’이란 제목으로 중소기업부장관상을 수상한 충남 천안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웰니스 강태순 대표의 이야기다.

재도전에 당당히 성공한 강 대표의 신념은 ‘남이 하는 것은 하지 않기, 늘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 그리고 부채 만들지 않기’다.

반려동물용품 제조기업 ‘토미코리아’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진 대표는 ‘6번의 폐업과 7번째 재창업’을 한 장본인이다. 이번 수기의 제목도 이와 같다.

김 대표에게 가장 뼈아프면서 큰 교훈을 남겼던 폐업은 차량용 방향제와 탈취제 제조회사였다.

김 대표가 운영하던 이 회사는 2003년 당시 ‘1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기도 하는 등 꽤 잘나갔다. 하지만 OEM 방식으로 제조를 하다 2006년 당시 엔화가 급락하면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출을 견디다 못해 결국 문을 닫아야 했다.

거기서 멈출수 없다고 판단한 김 대표는 과거 중국 기업들과의 비즈니스

중기부, 재도전 사례 수기 공모전 ‘천국가는 아내...’ 중기부 장관상 부실채권 소각 행사도 병행 내년도 3000억 이상 소각 예정

경험을 바탕으로 반려동물용품 아이템으로 재창업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 용자를 받아 초기 자본을 만들고, 온라인 판로 교육을 통해 포털사이트의 스마트스토어도 직접 열었다. 스마트스토어에선 일주일 만에 1만장 판매라는 성과를 올렸다.

김 대표는 과거에 자신이 거뒀던 ‘수출 100만불’을 달성하는 날을 위해 다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외에 ▲실패는 패배가 아니라 완성된 결과를 위한 과정일 뿐!(스테이정글 김은정 대표) ▲재도전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테크빌리지 최동훈 대표) ▲애들이, 아빠 출근한다.(울릭스글로벌 유창남 대표)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중기부는 이날 부실채권 소각행사와 함께 가졌다.

소각행사를 통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약 1조7000억원 규모의 사실상 효력이 소멸된 채권을 소각해 6만6000명

이상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재기를 꿈꿀 수 있게 됐다.

중기부는 내년도도 정책금융기관들과 협력해 3000억원 이상의 소각을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실패는 우리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강한 회복 탄력성으로 다시 한 번 성공의 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공공금융기관에만 적용하는 연대보증제도 폐지 정책이 ‘창업 및 재도전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조이현 수석연구원은 이날 내놓은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 연대보증과 책임경영심사’ 보고서에서 “공공·민간 금융기관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책임경영심사를 고도화해 민간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가칭)민간책임경영심사위원회를 설립해 이 조직을 통해 책임경영심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고도화, 조직, 예산 등을 담당하도록 하면 재도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유토이미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루나미엘레에서 열린 ‘지하철 Wi-Fi 28GHz 백홀 실증결과 발표 및 놓어촌 5G 공동이용망 시범상용화 개시 행사’에 참석해 ‘놓어촌 5G 상용화’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홍석준 국회의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구현모 KT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통사 내년 경영키워드

고객·서비스·기술... 네트워크 안정... 신사업

(SKT) (KT) (LGU+)

놓어촌 5G 공동이용망 시범상용화

이동통신3사대표인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고객·서비스·기술’을, 구현모 KT 대표는 ‘네트워크 안정성’을,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신사업 중심 개편’을 내년 경영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통 3사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놓어촌 5G 공동이용망 시범상용화 행사에 참석 후 기자들로부터 내년 경영 키워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변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통신 기반에서 서비스 컴퍼니로 진화를 생각해 기본이긴 하지만 ‘고객·서비스·기술’이 세 가지를 경영 키워드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키워드는 지난 1일 SK텔레콤이 통신 사업을 담당하는 SK텔레콤과 반도체·정보통신기술(ICT) 투자를 맡는 SK스퀘어로 분할, 출범하면서 유 대표가 제시한 경영 키워드와 같다.

유 대표는 당시 “SK텔레콤은 안정적인 ICT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사회

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며 “고객과 기술, 서비스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1등 서비스 컴퍼니다운 자부심을 지켜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현모 KT 대표는 “네트워크 안정성과 생존성을 강화하고, 디지코(디지털 플랫폼 기업) 핵심 사업들이 성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내년 키워드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전국적으로 유무선 네트워크 장애를 일으킨 사태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내년 사업 키워드에 대해 “신사업 중심으로 개편을 강화해 잘해나가겠다”며 내년 키워드에 대해 밝혔다.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표는 5G 투자를 예년 수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4분기 내에 집행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구 대표는 “최대한 전년 수준으로 집행할 것이다”고 밝혔고, 황 대표는 “투자는 전년 수준과 동일하게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윤정 시전문 기자 echo@